

오늘 브렉시트 투표 “경제 파탄” vs “이민자 천국”

영국, EU 탈퇴 여부 결정

찬반 진영 막판 공포 작전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반 국민투표가 코앞에 다가오자 찬반진영의 막판 스퍼트에 들어갔다.

두 진영은 브렉시트 여부를 두고 각자 시각을 투명한 결과를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우려를 자극하기 위한 표현을 쏟아냈다.

EU 잔류 진영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라”며 브렉시트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경고했다.

영국 언론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21일 집무실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희망과 꿈을 생각해 달라”며 “탈퇴를 선택한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영원히 유럽을 떠나 다음 세대는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사회 명사들로부터도 힘을 얻고 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억만장자 외환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브렉시트 시 파운드화 폭락으로 가계와 시



‘23일 EU 잔류에 투표하라’는 제목을 내건 영국 일간지.



영국 서남부 뉴린항에 정박된 배에 붙은 탈퇴 촉구 깃발.

EU 잔류		EU 탈퇴	
영국의 전체 수출 중 45%를 EU가 차지	무역	EU 탈퇴하면 중국·인도·미국 등 다변화	
EU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큼	분담금	영국 경제에 부담(2014년 총 부담금 178억 파운드)	
회원국들의 복잡한 규제들이 통일되는 효과	규제	EU의 과도한 규제	
이민자들은 영국 경제에 중요한 노동력	이민자	자율적 국제 통제로 이민자 규제 가능	

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브렉시트 반대를 천명했다.

영국 FTSE100 지수에 포함된 50개 대기업과 900여 개 중소기업 등의 기업가

285명은 22일 일간 더타임스에 보낸 공개편지에서 “브렉시트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유럽과의 거래 축소,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잔류 찬성을 선언했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항공업체 대표 조 말론 등 이들 기업가는 영국이 유럽 단일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거래 조건을 모두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진영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탈퇴 진영을 이끄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은 잔류 진영이 영국 경제의 타격 가능성을 설화하는 “공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을 브뤼셀(EU 본부)에 머리를 숙이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한심하게도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시장은 이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이민은 통제되어야 한다”며 EU로부터 이민자 문제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브렉시트 진영의 논리를 재차 펼쳤다.

그는 “작년 EU로부터의 순 유입 18만 4000명, 그중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지도 않은 채 들어오는 7만700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명백히 통제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EU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영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터키가 EU에 가입하면 더 많은 이민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달러당 6.6위안 턱밑

중국 당국이 다시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6위안 턱밑까지 끌어올렸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22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42% 오른 달러당 6.5935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큰 폭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린 것은 지난날 30일 0.45% 절하 결정 이후 약 3주 만이다.

오전 9시 19분 현재 역외시장 위안화 환율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달러당 5.985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인민은행은 이날 7일짜리 역레포(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시중에 1500억 위안(약 2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뒤끝 없이 치러질까?”

내달 美 대선 후보 출정식

지난 수개월 간 대선 후보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여온 민주, 공화 양당이 다음 달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 출정식을 갖는다.

공화당은 7월 18~21일 클리블랜드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7월 25~28일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당 대회를 갖고 11월 대선 본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하는 한편 정강·정책 등도 다룬다.

전통적으로 당 대회는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대선과 의회 선거 승리를 다지는 축제와 단합의 장이 돼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다. 축제와 단합보다는 프라이머리(예비경선)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경쟁자들 간의 응어리가 다시 한번 표출되면서 논란의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전문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여기에 최근 테러 위협으로 대화장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인종차별적인 돌출 발언과 행동으로 미 대선 후보 사상 최대 비호감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뽑는 공화당 전당대회 장은 특히 테러 위협 대처에 부심하고 있다.

테러 위협 대처를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5000만 달러를 특별 지원받았다.

양당 전당대회가 단합보다는 논란과 내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가 프라이머리 과정에서의 이견을 깔끔히 마무리하지 못한 탓이다.

또 두 후보 모두 역대급의 비호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내부 단합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주 요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투표 결과 내일 오후 3시 발표

등록 유권자 4650만명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3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미디어북에 따르면 전국의 투표소는 23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 열려 같은 날 오후 10시(한국시간 오전 6시)에 닫힌다.

투표용지에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할지, EU를 떠나야 할지’라는 질문이 담겼다. 유권자들은 ‘EU의 회원국으로 남는다’ 또는 ‘EU를 떠난다’라는 두

항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십자 표시를 하게 된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유권자의 자격을 영국 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유권자는 4650만명으로 이들의 범주에는 영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영국, 아일랜드, 투표권을 지닌 코먼웰스(영국 연방) 시민권자들이 포함된다.

과거 15년 동안 의회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해외 거주 영국인, 과거 15년 동안 북아일랜드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북아일랜드 출신 아일랜드 시민도 투표권을 지닌다.

오바마, 북한 경제 제재 또 1년 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1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가 발동된 이후 매년 6월마다 반

북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모든 대북 제재 조치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 북한을 특정해 제재 조치를 부여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3466호를 비롯해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 지난 3월의 13722호 등 모두 5개에 이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협”을 들었다.

리우 성화 봉송 동원 재규어 사살...동물보호단체들 거센 비난



20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 동원됐다 사살된 재규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동원된 재규어가 군인을 공격하려다 사살됐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UOL 등에 따르면 전날 브라질 북동부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서 열린 성화 봉송 행사에 동원된 ‘주마’라는 이름의 재규어가 군인에 의해 사살됐다.

이 재규어는 많은 사람이 참가한 가운데 벌어졌던 행사 분위기 때문에 흥분한 듯

행사가 끝날 무렵 한 차레 탈출하려다 군인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러나 재규어는 잠시 후에 또 다시 탈출을 시도했으며, 사육사가 쓴 진정제를 맞고도 맹수의 본능을 드러내며 군인을 공격하려다 옆에 있던 군인이 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재규어는 미주 대륙에 주로 서식하는 고양이과 동물로, 이번 리우올림픽 브라질 팀 마스코트인 ‘징가’(Ginga)의 모델

이기도 하다.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들은 올림픽 행사에 야생동물인 재규어를 동원한 것이 적절치 못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리우 시에서 활동하는 ‘동물자유연맹’은 “야생동물을 억지로 길들여 행사장에 끌고 나가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일자 브라질올림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20년 노하우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 (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전 지역 신속 책임 중개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대로변 7층 중 4층 상가317㎡ 감정가 7억8천 최저가 4억3천6백(56%) 투자적합
- ★ 나주시 오광동 가야농공단지내 공장 대지3,587㎡ 건물 1,097㎡ 감정가 9억 최저가 9억 신축냉동창고 사무실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 대지6,552㎡ 건물2,473㎡ 감정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만원
- ★ 광주 광산구 신가동병원 대지2,756㎡ 건물3,606㎡ 감정가 46억9천 최저가 46억9천만원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
- ★ 함평 해보면 용산리 공장 대지 3,306㎡ 건물 1,977㎡ 감정가 26억1천1백 최저가14억6천2백
- ★ 전주시 덕진구 유아동3가 전주역앞 10층상가 대지517㎡ 건물3,581㎡ 감정가 31억7천 최저가 22억1천8백
- ★ 광주 동구 금남로3가 대로변 7층건물 대지1,584㎡ 건물4,967㎡ 감정가 103억3천 최저가 88억5천8백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6층 상가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1,010㎡ 건물1,610㎡ 객실20개 월 5천만원 매매 20억원
- ★ 광주서구화정동 6층호텔 유희대지416㎡ 건물2,000㎡ 터미널빌딩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보증금 2억5천 월 1천4백 매매 27억(음13억포함)
-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298㎡ 건물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가 16억5천5백
- ★ 목포시 연산동 롯데슈퍼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최상 매매 상담 결정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상가 대지 675㎡ 남구청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 24억원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판매장 상가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원함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펜션카페 대지15,668㎡ 건물900㎡ 수익성미래가치우수 매매가상담후결정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 광주 산수동 대로변4층건물 대지596㎡ 건물948㎡ 주택86㎡포함 매매12억5천만원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개개 매매 4억(용 3억) 투자적합 직영추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공인중개사 강천구 010-6838-6008